



최재호 부장



명등룡 소장

광주일보-광주상의 2차 좌담회 '자동차산업 비정규직 실태와 과제'

광주일보는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산업 분야에서의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15일 '광주 지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구조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1차 좌담회에 이어 지난 19일에는 2차로 '광주 지역 자동차산업에 있어 비정규직(간접고용) 실태와 과제'에 대한 좌담이 열렸다. 좌담회 광주일보 경제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박성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금속지회장, 손준해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과장이 참석했다.



손준해 과장



박성진 지회장

“정규·비정규직, 원청·하청... 車 생산 ‘네바퀴’ 조화 이뤄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간 노동자 계층의 갈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현저하게 차이나는 임금을 받는 구조적 모순은 노사간 불신을 키워 사회통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성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금속지회장=지역 대부분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은지 이미 오래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부품사들이 정규직 고용대신 하도급 등 간접고용 인원을 늘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며 열악한 노동현실이 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고용환경과 임금 등의 요인으로 노동자가 나가면 사측은 이에 맞춰 비정규직을 계속 늘릴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완성차 업체와 하청간 잘못된 노동시장 구조가 계속되는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는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기아차 관련 노동자 총 2만3000여명 중 3분의 1인 7700여명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추산된다. 더 심각한 것은 임금격차다. 기아차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9700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비해 2차 협력사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고작 2200만원이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기아차 정규직 연봉이 2차 협력사 사내하청 노동자의 4.4배나 된다. 이게 지역 자동차 산업과 노동시장의 현주소다.

▲손준해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과장=고용노동부도 통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한 인식차이로 숫자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5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보는게 맞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일하는 사람간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즉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기업규모·고용형태·노조 유무가 일자리 질을 좌우하고 심각한 임금격차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심각한 수준이다. 개선될 여지가 있겠는가?

▲박 지회장=지역 노동시장의 실제적인 문제는 비정규직이 많고 환경이 열악하지만 힘을 결속할 조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이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조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측은 이 싸조차 틈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실태조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명 소장=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부문에서 조사하기는 어렵다.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선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불법도급이나 하도급이나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 민과 관의 공조를 통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안산의 경우 도급업체의 35%가 불법 파견이다. 최소한 50%



광주일보는 지난 19일 편집국 회의실에서 '광주 지역 자동차산업에 있어 비정규직(간접고용)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규직·하청 연봉 4.4배 차이... 구조적 모순이 불신 키우고 통합 저해
영세노동자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 시급

이상은 도급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 광주 지역도 좀더 면밀하고 강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손 과장=실태조사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기업비밀도 보호되어야 하기에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조치로 고용형태공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300인 이상 작업장의 경우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 스스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위한 핵심 개선안이 될것이다. 아울러 불법파견은 문제 발생이전 감독의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비정규직 하청문제와 관련 현대위아 노사합의가 노동시장개혁의 선례라고 본다. 광주시까지 나서 중재를 이끄는 등 모범적인 노사합의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 대타협이 지역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박 지회장=노동운동 측면에서 보면 현대위아의 비정규직 노조는 노동조합 결성에서 단체교섭까지 단 시일에 완성한 보기 드문 경우다. 5개 도급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꾸렸더니 모든게 합법적인 과정으로 진행됐고, 노조가 철저히 준비하면서 잘 풀렸다고 본다. 하지만 교섭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도급업체와 교섭을 통해 합의해도 원청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조합원의 정상적인 조합활동과 지위 개선 등 핵심사안은 원청사에 귀결되고 원청사의 파견법에 따라 전반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노조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실상 체결한 단협안은 요구했던 초기 단협안 보다 다소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소강국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청사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명 소장=빠른 타협을 이끌었다는 점은 좋은 측면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를 보고 역설적으로 한국사회가 왜 그러는지, 노동시장의 왜곡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의 수직 증가속에서 노사 관계의 후진적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술어진 노사관계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였는데 현대위아의 경우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 드물게 비정규직 노조원의 참여가 높았고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극적인 타협이 됐다라고 본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번 분규 역시 근원적으로 원·하청간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그룹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노무 관리를 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이다.

▲손 과장=노조 설립초기에는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등 고소·고발이 많아 노사 모두 큰 손실과 희생을 치르기도 마련인데 현대위아의 경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가 설립돼 노사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타협을 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특히 원청이 자기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 개선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최근 한 조사에서 광주시민들은 비정규를 계약직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직 문제와 관련 계약갱신과 고용불안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박 지회장=우선, 가장 많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30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진행돼야 한다. 지역의 근간 사업에서조차 비정규직이 많고 임금이 낮고 권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력자원에서도 그렇다. 인간으로서도 하지말아야 할 일이 차별이지 않나. 완성차 업체인 기아차는 모토화를 통해 차를 조립하는 원청사다. 하청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내유보금 하청업체 노조원에게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다.

▲명 소장=근본적인 문제는 답이 없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는 것도 신경써야 한다. 적어도 인건비 절감 차원의 쪼개기 계약이나 쉬운 해고를 위한 파견 계약지 남발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비정규직만 양성하는 현 노동시장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 밖에도 지역 자동차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발상 전환도 촉구한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1·2차업체 협력기금을 마련, 기업이미지 개선을 꾀해야 한다. 광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도시 구축의 꿈을 위해서도 왜곡된 노동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새로운 광주형 사회통합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원청 업체의 임금은 낮추는 대신 하청 업체의 임금을 올리는 것도 상생의 해법이다. 도급업체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상생기금을 조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 폭스바겐의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다.

▲손 과장=당장 우리 이웃끼리 개인의 능력과 성과가 아닌 어디 소속이고 고용형태가 어떠한에 따라 임금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어떤 상생이 있겠는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적어도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남용 관행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원하청간 도급구조개선(부품사 수익률 적정 보장 등), 기술협력 지원, 상생협력기금 조성,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 구체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지난 6월 임금인상분의 20%를 협력사 직원의 처우와 안전·보건·환경개선에 지원하는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이나 경남지역 금속노조와 사용자가 실업자와 비정규직, 영세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의 교육비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한것은 우리지역에서도 본받을 만한 사례다.

/정리=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적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부 062.220-0551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영점)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르로제꽃
북구 용봉동 425-2번지
(용봉동 개인택시 신협 옆)
꽃향기 감촉 선물이
매일 가득한 감성 꽃집
대표 박정호 ☎062)413-7673

다미울
북구 풍향동 백림 약국 건너편
천연염색비류, 인테리어소품, 의상지수수선
한복수, 마크수, 한웃 예쁜 자수로 리폼
26년 경력 의류 자수
☎010-8261-5205

오리나라만세
북구 중흥동 333-26번지
(전대정문에서 50미터 지점)
약오리, 옷오리, 오리탕, 오리주물럭,
오리로스구이, 아구찜, 아구탕
☎062)522-7333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800-28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어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광주척추신체교정원
계림동 마사회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증상, 전신경락
원장 박재남 ☎010-8827-7799

해택을드리는기업(주)JK상조
서구 상무중앙로 28번길4
(세진빌딩 704호)
직영장례식장 운영(무등장례식장,
만평장례식장, 해피뮤장례식장)
이성희 ☎010-8542-3366

미정
동구 금남로27(구)동구청 뒤
옛날 구미향
계절 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 강의내용, 사주, 음권,
양권, 사주학, 수지침, 수축침, 이침
☎062)432-1324

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회암관
북구 두암동 예텐병원 옆
(장영사 정문앞)
소머리국밥, 황태국밥, 수육
단체예약순님 환영
대표 김미자 ☎062)261-5912

북구모아공인중개사
북구 중흥동328-15 중흥모아@후문
아파트, 원룸, 상가, 임야
임대 및 매매전문
대표 고광영 ☎010-3624-0058

늘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리상실업)
부대찌개, 철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고전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텐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원승 ☎062)222-6866

이가회관
서동구 금남로27가 총장동사무소 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찜,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단체모임예약환영
대표 이복례 ☎062)224-1541

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궁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장앞)
경조화환, 동·서양화,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김봉식 ☎062)236-3177

광주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중환 ☎062)232-4784

구수향
동구 예술의거리 원불교 건너편 골목
생고기 비빔밥 전문, 짬뽕어탕,
한방오리, 오리로스, 예약순님 환영
☎062)224-7687, 010-2611-7687